

원희룡 장관, “혁신 내·항공MRO 품은 성장거점 진주” 지원할 것 **- 17일 경남 진주시 찾아 내, 도로·항공현장 점검 등 발전 지원 약속 -**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7일(금) 오전 경남 진주시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혁신을 위한 준비 상황과 진주시 현안 사항을 종합점검하였다.
- 먼저, 원 장관은 LH 진주본사에서 LH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부공모를 통해 임명된 상임이사 3명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
 -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"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시각을 떨쳐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관행을 낫선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"면서, "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"을 강조하였다.
- 또한, 원 장관은 직원과의 대화에서 "LH는 사실상 공권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므로, 더 엄격한 기준으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"고 하였다.
- 이어서 원 장관은 항공부품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“국산항공부품 제작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개선, 해외인증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원 장관은 진주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거점 조성,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하였다.
 - 원 장관은 “서부 경남 지역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, 항공정비업체, 항공 특화 국가산단 등 항공산업 생태계가 집적되어 있는 만큼, 지역 성장 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도 핵심적 지역”이라고 강조하며,
 - “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일자리 조성과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 - 또한, 지역 숙원사업인 “사천~진주 국도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·국지도 건설계획(’26~’30)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, 교통 수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2023. 11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